

사기 총천 김도훈호... "오늘 중국은 없다"

6차전도 골 폭죽 자신
C조 1위 결정됐지만
꼭 이겨야 3차 예선서
다-이란 같은 조 피해

'공한증'에 시달리는 중국을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분위기가 화기에 예하하다. 훈련 분위기도 좋을 수밖에 없다.

김도훈 임시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6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치른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완승했다.

6일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상대 골문을 폭격하며 7-0 대승을 거둔 한국은 홈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6차전에서도 '달 폭죽' 분위기를 이어가 축구 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다.

9일 오후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훈련하며 중국전 대비 막바지 구슬땀을 흘렸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인범(즈베즈다) 등 주축 선수 21명이 이날 훈련에 참석했다. 정우영(칼리즈)은 왼쪽 허벅지가 불편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기를 못 펼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니다.

1-2m 거리의 짧은 패스와 10m 거리의 긴 패스로 볼 터치 감각을 살린 선수들은



1 한국 축구 대표팀 황희찬(왼쪽)과 손흥민이 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2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맨 왼쪽)과 이강인(오른쪽 세 번째)이 8일 오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픈 트레이닝에서 훈련 중 맨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3 김도훈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이 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선수들을 훈련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7-8명씩 그룹을 지어 술래를 가운데에 두고 공을 돌리는 '몬도'를 하며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싱가포르 원정으로 치른 5차전에서 시원하게 7-0 대승을 거두며 C조 1위와 3차 예선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지은 한국은 가벼운 마음으로 중국전을 대비한다. 3차 최종 예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 편성을 받기 위해서 중국전 승리는 필수다.

3차 예선이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3위권을 유지해야 일본(18위), 이란(20위)과 같은 조로 묶이는 걸 피할 수 있다. 현재 한국(1563.99점)은 랭킹 포인트에서 아시아 4순위인 호주(24위·1563.93점)에 0.06점 앞서있다.

이번 A매치가 끝나면 6월 FIFA 랭킹이 발표된다. 한국-싱가포르 경기, 그리고 호주-방글라데시(호주 2-0 승) 경기 결과를 반영해 랭킹 포인트를 계산해보면 한국(1566.74점)과 호주(1565.78)의 격차는 0.96점으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국이 이미 4승1무(승점 13)로 C조 1위를 확정지었고, 1경기를 남긴 현재 2위 경쟁이 치열해졌다. 중국이 2승2무1패(승점 8)로 2위, 태국이 1승2무2패(승점 5)로 3위다. 순위만으로는 중국이 유리한 듯 보이지만 11일 최종전 상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국은 C조 최강인 한국과 원정 경기에서 나서는 반면 태국은 C조 최약체로 분류되는 싱가포르를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박병헌기자 bhpark@skyedaily.com



안나린이 10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슐라이트 LPGA클래식 최종 3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LPGA 우승 가뭄 14번째 투에서도 태극 남자 또 빈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태극남자들이 2024시즌 14번째 대회인 슐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도 우승컵 없이 돌아왔다.

1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시부 베이코스(파71)에서 끝난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안나린이 함께 10언더파 203타로 공동 6위에 오른게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신지은은 1타를 잃고 공동 9위(9언더파) 204타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랭킹 7위인 고진영과 이정은은 8언더파 205타로 공동 12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들이 LPGA 투어에서 우승 가뭄이 길었던 최근 시즌은 2014년이 었다. 당시 박인비가 14번째 대회인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우승해 가뭄을 해소했다.

1998년 박세리가 시즌 14번째 대회에서 첫 승을 올린 뒤 1999년에는 19번째 대회, 2000년 16번째 대회, 2008년 14번째 대회에서 한국 선수 시즌 첫 승이 나온 적이 있다. 2024시즌에는 14번째 대회까지 우승이 없어 한국 선수들은 1998년 이후 세 번째로 긴 우승 가뭄을 보내게 됐다.

우승컵은 마지막 날 무려 11타를 줄여 기적같은 역전극을 펼친 린네아 스트림(스웨덴)에게 돌아갔다. 2라운드에서 컷에 턱걸이했던 스트림은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9개를 잡아 LPGA 투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타수인 60타를 적어냈다.

이는 LPGA 역대 우승자의 마지막 라운드 스코어 중 가장 낮은 타수다. 이전 기록은 한국의 박인비가 2014년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대회 마지막 라운드 때 세운 61타였다.

박병헌기자 bhpark@skyedaily.com

'샷별' 알카라스 프랑스오픈 새 왕좌 등극

'샷별' 카를로스 알카라스(3위·스페인)가 알렉산더 츠베레프(4위·독일)를 물리치고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350만 유로·약 794억 원)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알카라스는 1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끝난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츠베레프와 4시간 19분의 혈투를 펼친 끝에 3-2(6-3-2-6-5-7-6-1-6-2)로 승리했다. 이로써 첫 프랑스오픈 우승이자

통산 3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만 21세의 알카라스는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하드코트와 잔디코트, 클레이코트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가 됐다. 그는 2022년 US오픈, 지난해 Wimbledon에서 정상에 선 바 있다. 이제 호주오픈에서만 우승하면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다.

앞서 US오픈, Wimbledon 결승전에서 한 번도 안 진 알카라스는 메이저 대회 결승전

승률 100%를 유지했다. 알카라스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 240만 유로를 받는다. 새로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알카라스는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남자 테니스 '빅3'로 군림한 로저 페더러(은퇴),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이외의 선수가 프랑스 오픈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건 2015년의 스타브르링카(8위·스위스) 이후 9년 만이다. 1세트는 전반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인

알카라스가 가져갔다. 그러나 2세트 들어 실수가 잦아지던 알카라스는 자신의 3번째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당하며 츠베레프에게 흐름을 내줬다.

알카라스의 4번째 서브 게임 역시 그가 더블폴트를 범하면서 허무하게 츠베레프의 게임 포인트로 연결됐다. 알카라스가 흔들린 건 거기까지였다. 그는 45세트에서 츠베레프를 압도하며 승부를 뒤집었다. 츠베레프의 마지막 샷이 네트에 걸리자 알카



알카라스는 코트바닥에 누워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며 첫 프랑스오픈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스키아데탈리·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